

# 학과경연하는 날에

김 경 영

오늘은 학과경연을 하는 날이다.

아침부터 긴장되었던 나의 마음은 시험시간이 가까와올수록 더욱더 흥분되었다.

이번에 진행되는 수학학과경연이 마치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듯 한 느낌이 들었다.

오늘의 학과경연을 위해 지새운 밤은 그 얼마였던가.

어려운 문제를 놓고 모태기던 끝에 선생님의 집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안되었던 밤길이며 동무들과 토론을 벌리면서 교실에서 맞던 새날도 있었다.

우리 학교에서는 한달에 두번씩 꼭꼭 학과경연을 조직하군 한다.

성적공시를 하고 1등 한 학급에 우승기도 수여하고 최우등생들은 영예의 사진도 찍어 게시판에 소개해준다.

이 자랑스러운 최우등생대렬에 영원히 서고싶어 나는 언제나 학과경연준비에 모든것을 다 바치는 것이다.

드디어 시험시간이다.

쿵쿵 뛰던 나의 심장은 차츰 진정되기 시작하였다. 칠판에 제시된 시험문제들은 모두 내가 다 풀수 있는 문제들이었던것이다.

나는 단숨에 시험답을 완성하였다.

여기저기서 펜들의 사그락소리가 들려오더니 활기편 동무들의 모습이 안겨온다.

아마 다 자신들이 있는 모양이었다.

(그러니 이번에도 우리 학급이 1등일거야.)

자신심에 넘쳐 시험지를 바치고 우리는 담임선생님이 들어오시기를 기다렸다.

서로서로 문제의 답을 맞추어보니 하나같았다.

선생님이 들어오셨다.

《모두 시험을 잘 쳤습니까?》

《예!》

우리는 모두 합창하였다.

문득 선생님의 눈길이 나에게서 멎었다.

《경영학생, 자신있어요?》

《예, 이번에도 우리 학급이 또 1등일겁니다.》

《경영학생은 늘 학급생각뿐이구만요. 이번에 수학과목책임자로서 경영학생이 동무들을 도와주느라고 수고가 많았어요.》

동무들은 나를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았다.

나도 동무들의 얼굴을 빙 둘러보았다.

여기에는 조국보위초소에 설 동무들도, 사회주의 대건설장에서 위훈을 떨칠 동무들도, 우리의 공화국기를 세계의 창공높이 휘날릴 체육선수로, 방직공영웅으로, 교원이 될 동무들도 모두 있었다.

그러나 모두의 지향은 하나였다.

그것은 높은 지식을 소유한 영예의 최우등생이 되는것이다.

하다면 우리는 왜 5점을 지향하는가.

이제 군대로 나가면 대덕산초소의 중대장이 되겠다던 철남이도, 체조무용선수인 옥금이도, 건축가의 꿈을 안은 명철이도, 우리 학급 모든 동무들이 다 최우등의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뛰고 또 뛰고있다.

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들의 성적증에 강성조선의 래일이 비껴있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.

우리들의 성적증에 새겨질 5점, 그것은 결코 쉽게는 이룰수 없는 크나큰 열매인것이다.

그가 누구든 그 어느 초소에 서든 5점은 자기앞에 맡겨진 그 어떤 과제도 실현할수 있는 열쇠로 될것이며 성공의 길로 이어주는 디딤돌로 될것이다.

더우기 오늘의 최첨단돌파전의 시대는 누구나 과학기술인재가 되어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떨쳐나설것을 바라고있다.

우리가 중학시절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할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시대앞에 지닌 책임과 역할을 다해갈것이다.

하기에 우리는 매번 진행되는 학과경연에 자기의 운명을 걸고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 있는것이다.

사회주의조선의 국력과 위상을 만방에 과시하는 특대사변들과 기적적승리가 련발적으로 창조되고있는 조국의 힘찬 발걸음에 우리도 보폭을 맞추자.

희열과 량만에 넘친 동무들의 가슴속에선 하나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.

또다시 학습전투에로!

다음번 학과경연을 위하여!

더 힘차게 올라서야 할 지식의 높은 봉우리가 우리 눈앞에 우뚝 솟아있었다.

(안주시 영웅안주교급중학교 학생)